

##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 1 만 년의 고독: 인류의 이동과 지역의 탄생

윤신영

일시: 2025년 4월 7일 7:30-9:30pm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개념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중심지, 도시 또는 수도(메트로폴리스)의 반대 개념으로 지역을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삶과 잇닿은 가장 가까운 현장으로 이해합니다. 지리적으로 넓게 흩어진 또는 분산된 여러 공간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지역은 어디이고 그와 대비되는 메트로폴리스는 어디일까요.

#### 주요 논의 내용

- 지역을 정의한다는 것의 모호함
- 벽화를 통해 보는 인류의 고독
- 단일 종을 이룬 인류의 다음 과제

지역의 정의는 모호하고 범위는 넓습니다. 이 정의를 위해 우선 인류의 지적 성취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곳, 문화나 문명, 삶이 탄생하고 발전하며 주변으로 확산하는 곳이 있다고 상정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 문화가 꽃핀 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지, 메트로폴리스로 정의하겠습니다. 지역은 이런 곳의 다양한 지리적 분포를 일컫는 말일 수도 있고, 중심지와 대비되는 여타 장소를 일컫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는 증거를 남깁니다. 오늘날에는 언어로, 문자로 흔적이 남겠지만,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시대는 아직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문화의 탄생과 확산이 이뤄졌음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물적 증거는 다름 아닌 그림, 그중에서도 벽화입니다. 벽화가 발견된 지역과 그곳에서 나온 그림을 통해, 당시 문화의 주된 발상지와 그 확산 양상을 짚어보려 합니다.

벽화, 그중에서도 구상화라는 고차원적인 문화의 산물이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를 통해 우리는 인류 문화의 주류가 어디에서 언제 발생했는지, 특정 지역에서 먼저 발생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는지, 아니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에 발견된 벽화의 분포는 그저 우연한 결과일 뿐인지 논의할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발견 지역에 편차가 있다면, 그것은 인류의 지적, 문화적 성취가 (비록 일시적이었을지언정)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문화적 중심지와 지역의 구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더해지면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을 5만 년까지 되돌렸습니다. 5만 년 전까지의 시기는 미묘한 시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약 30만 년 전 탄생한 현생인류(호모 사피엔스)가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한창 확산하던 시기입니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열대 및 아열대 해안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좀 더 성큼성큼 퍼졌고, 척박한 내륙을 따라 동쪽으로는 더디게 퍼졌습니다. 이 시기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몹시 추운 빙하기와, 상대적으로 덜 추운 간빙기가 교차했습니다. 5만 년 전 전후는 빙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인 약 2만 년 전은 마지막 빙하기 중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최후빙기 최성기였습니다.

나날이 추워져 가던 지구에서, 현생인류는 봄에 대한 기대 없이 현실을 버텨야 했습니다. 한 걸음씩 미지의 땅으로 영역을 확장해 갔고, 그곳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는 그곳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손바닥, 멧돼지, 소, 새 머리를 한 인류를 어두운 동굴 안에 그리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긴 추위와 개선의 기약 없는 척박함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어렵פות하게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강연 제목에 ‘고독’을 붙였는지 말입니다. 물론 짐작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술에서 인류는 바로 우리 현생인류만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현생인류가 벽화를 그리고, 문화를 일궈으며 고등한 사고를 바탕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인류’가 단 하나의 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위에 선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종의 인류를 만난 적이 없죠. 우리는 고독한 종입니다. 우연이겠지만, 이들 친척인류 상당수의 존재 시기는 약 5만 년 전까지입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던 이들 친척인류가 있었지만 5만 년 전 모두 사라졌고, 그 자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현생인류가 본격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확산하던 때와 일치합니다. 현생

인류가 이들이 사라진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 인류가 유라시아 각지에 분포하던 당시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춘추전국시대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30만 년 전 비교적 뒤늦게 먼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호리호리하고 키 큰 인류 종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인류가 지역을 분할해 공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프리카는 많은 인류를 탄생시킨 요람으로, 인류의 생물학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그곳에서 태어나 살아가며 경쟁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메트로폴리스를 딱 한 곳만 꼽으려면 아마 아프리카, 그중에서도 동아프리카를 꼽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종들 틈에 뒤늦게 등장한 무명의 신인 호모 사피엔스는 그 일부 그룹이 고향을 떠나면서 이전의 인류가 발자취를 남겼던 지구 곳곳에 빠르게 진입했고, 열대 아프리카부터 극지역과 태평양의 먼 섬까지 지구 모든 곳을 차지하며 단일 종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다른 유인원과 특별히 뛰어난 점이 없던 한 무리의 유인원은 수백만 년 뒤 자신의 후손이 단 한 종 살아남아 80억 개체로 늘어나며, 이들이 전 지구 구석구석에 퍼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원래 종은 서식지가 분화하면 신체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하고, 서로 고립된 채 진화해 새로운 종 또는 아종으로 분화합니다. 각각의 종이 생태계의 작은 차이와 틈에 근거해 태어나고 생존합니다.

이것이 지구에 막대한 다양성을 낳은 근원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달랐습니다. 단 한 종만이 살아남았고, 이들은 신체가 아닌 문화의 힘으로 크고 작은 환경 차이를 극복하며 지구 전역에 퍼졌습니다. 동시에, 먼 거리를 가로지르며 교류하고 소통하며 여전히 단일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종의 대형 포유류 80억 개체가 지리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는(전 지구에 퍼져 사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낯선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역입니다.

이제 인류는 다양한 지역에 동시에 존재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 됐습니다. 이 여정이 마무리 되기가 무섭게, 인류는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 다행성 종족이 되려고 합니다. 인류를 지역적 존재로 만든 문화적 적응의 기원인 지적 능력 측면에서는 인류를 뛰어넘는 기억력과 사고 속도를 지닌 기계,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역시 한계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가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적 능력과 문화를 통해 원래의 신체 능력을 증강했고, 빙하기라는 혹독한 자연의 위협을 이겨내며 유일무이한 지역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위협이 닥친 시기에, 지역(地域)과 고유한 지능이라는 한계마저 풀고 다음 존재가 되려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결과가 무엇이든, 맞이할 준비는 돼 있을까요.

---

윤신영

과학기자, 과학잡지 《에피》 편집위원, 《과학동아》 기자 및 편집장, 《동아일보》 과학 담당을 거쳐,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과학기술 및 기후 에디터를 지냈다.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를 묻다』, 『인류의 기원(공저)』 등을 쓰고 『화석맨』 등을 번역했다.